

(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5면)

잠실관광특구 확대, 실행 이어져야



▲전정 행정고
육위원장(송파
1·2동·방이1동)
은 지난 8월 확
장 지정된 잠실
관광특구의 실
질적인 활성화
를 위한 구체적
실행 방안을 집

행부에 강력히 제안했다.

전 위원장은 “지난 8월 27일 잠실관광
특구가 송리단길, 방이시장, 방이맛골까
지 확대 지정된 데 이어 10월 1일 활성화
토론회가 열렸다”며 “대형 관광시설을 찾
는 관광객의 발길이 골목상권으로 이어
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이 변화
를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노력이 필요하
다”고 말문을 열었다.

전 위원장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4

가지 과제로 △관광명소와 골목상권을
잇는 도보 관광코스 ‘잠실 링 투어’ 조성
△권별 야간관광 및 행사 추진 △간판 정
비, 다국어 메뉴판 보급 등 점포 매력도
제고 △상권 간 영수증 연계 할인 시범 운
영 및 대형 관광시설·공연장 연계 홍보
강화를 제시했다.

이어 “관광특구협의체를 통해 상인과
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내년도 사
업계획에 우선 추진 사업과 예산, 관리 책
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”며 “사업
추진 후에는 방문객 수뿐 아니라 체류시
간, 상권 매출, 주민 만족도까지 면밀히
살필 필요가 있다”고 당부했다.

전 위원장은 “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
싶은 골목을, 상인에게는 새로운 기회를,
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
관광특구 활성화의 진정한 방향”이라고
말했다.